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현황과 과제

Trends Analysis of Children's Services Research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김 종 성 (Jong-S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연구 주제와 방법 현황 |
| 1. 연구 목적 | 1. 주제별 연구 현황 |
| 2. 연구 범위와 방법 | 2. 연구 방법 현황 |
| 3. 선행연구와 주제 영역 구분 | IV. 발전을 위한 과제 |
| II. 연구 추이와 형태 현황 | 1. 도서 연구의 역량 강화 |
| 1. 연도별 연구 현황 추이 | 2. 연구의 실효성 제고 |
| 2. 연구 형태와 연구자 현황 | 3. 현장 근접성 강화 |
| | V.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의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연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에 창간호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학술논문 113편을 분석하였다. 연도, 학회지, 연구자, 주제, 연구방법, 연구비 등을 기준으로 논문 현황을 분석하였고 연구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연구 논문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어린이 도서 연구의 활성화, 어린이서비스 연구 전반의 실효성 제고, 연구의 현장 근접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어린이서비스, 연구경향, 어린이사서, 어린이도서, 연구방법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children's services research in Korea. A total of 113 research articles were selected from 4 journal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ticles were analyzed in the aspects of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uthor types, and research funds. The writer discussed the problems shown in the articles and suggested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esearch.

Keywords: Children's services, Research trend, Research methodolog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js1010@kmu.ac.kr)

• 접수일: 2013년 5월 19일 • 최초심사일: 2013년 5월 30일 • 최종심사일: 2013년 6월 27일

I. 서론

1. 연구 목적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총독부도서관의 부녀자문고와 경성도서관의 아동열람실이 설치된 1923년의 일이다. 하지만 일제시대와 6.25, 그리고 억압적인 정치사회적 상황이 지배하던 산업화시기를 지나는 동안 어린이서비스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어린이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어린이를 위한 독서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이러한 흐름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2003년 순천 기적의도서관이 개관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성과의 대표적인 시발점이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겨우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비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어린이서비스의 성장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순천 기적의도서관을 필두로 하여 11개의 기적의도서관이 개관하였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잇따라 건립하였다. 개인, 종교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을 설치하기도 하고 기존의 제도권 공공도서관에서도 어린이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모든 일이 지난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어린이서비스의 발전과 성장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린이서비스 현장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과거에는 어린이 독서교육이나 어린이 책에 대한 연구가 간간히 발표되었으나 최근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여러 측면들을 다루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어린이서비스를 연구하는 인력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연구의 양과 질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린이서비스의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의를 내포하는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어린이서비스 관련 연구가 얼마나 수행되고 있으며 어떤 연구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현장을 반영하면서 이끌어가고, 어린이서비스의 이론적 체계를 축적해 가기 위해서는 연구 영역에서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는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어린이 문학이나 도서와 관련하여서는 국문학이나 다른 외국문학 분야 등에서, 어린이 독서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학 분야 등에서,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공간이나 시설과 관련해서는 건축학 분야 등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처럼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서비스 관련 연구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논문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일차적으로 연구의 편의와 연구자의 역량을 고려하였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방법론에 대한 점검을 한 이후 다른 분야의 관련 연구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문헌정보학 분야로 범위를 한정하였지만 어린이서비스 영역의 연구 논문을 선별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독서 관련 연구, 학교도서관 관련 연구,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관련 연구 등에서는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연구 대상을 추출하려고 노력하였다. 독서 관련 연구이지만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일반적인 독서 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학교도서관을 전제로 한 연구, 그리고 어린이가 포함되었지만, 연구 내용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 연구 등은 제외하였다. 반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독서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은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 논문을 선별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지 중에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를 창간호부터 2012년까지 조사하였다. 학회지를 직접 보면서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어린이서비스 연구라고 판단되는 논문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논문 113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학회지별, 연구형태별, 연구자별 현황 등을 살펴 보았고,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연구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이외의 학계에서 연구된 어린이서비스를 다루지 않은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면서 향후의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의 완전한 연구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이외의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선행연구와 주제 영역 구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경향을 다룬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문헌정보학 전 분야를 다룬 연구¹⁾도 있고 특정 주제 분야나 대상을 다룬 연구²⁾도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특정 영역

1)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6),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2호)

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정 주제 분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부터 접근 방법을 참조하였다.

어린이서비스와 관련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도 수행된 적 있다. 공정자는 우리나라와 북미에서 생산된 학위논문을 분석하여 어린이서비스 분야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³⁾ 이 연구가 참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주요한 선행연구라고 할 만하다. 한국에서 생산된 학위논문 125편과 북미에서 생산된 학위논문 149편을 분석하여 어린이 서비스 관련 연구의 연도별, 주제별 생산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공정자의 연구와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연구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한 주제 영역의 구분 방법도 공정자의 연구와 다소 다르게 적용하였다. 공정자는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에서 생산된 어린이서비스 관련 개론서의 내용 체계를 근거로 하여 주제 영역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주제 영역은 자료, 서비스, 프로그램, 경영 및 관리, 어린이 행태, 이론 및 역사 등 6개 영역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다소 다른 구분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논문을 검토하고 주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공정자의 연구에서 적용한 주제 구분이 어린이서비스 관련 연구의 주제 영역을 균형 있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주제 접근을 위해 사용한 영역 구분은 어린이서비스 일반, 공간과 시설, 인력, 자료, 프로그램, 이용자서비스, 독서 등 7개이다. 이러한 영역이나 주제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 pp.9-32;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1959~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2003. 12), pp.21-42; 송정숙,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현황 분석: 2001년~2010년 발행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12), pp.333-353; 이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9), pp.287-310.
- 2)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 논문제목의 구문 및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09. 9), pp.417-439; 김정현, “한국의 자료조직 분야 연구동향: 1970~20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149-164; 남태우, 이진영,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451-473; 실문원,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3호(2012. 9), pp.203-232; 오세훈, 이두영,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2005. 3), pp.167-189; 유사라, “메타데이터 주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0. 6), pp.404-425; 윤희윤,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성과와 한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25-44; 이란주, 임지혜, “한국의 서지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1호(2002. 3), pp.323-344; 이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3), pp.287-310; 이소연,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2011. 6), pp.8-31; 장로사, 김유승,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1호(2009. 3), pp.87-100; 장운미, 정연경, “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1호(2013. 3), pp.24-44; 정재영, 박진희,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11. 6), pp.171-191; 최재희,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2011. 3), pp.7-22; 한복희, “이용자 연구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도서관학, 제23권(1992), pp.107-125; 황금숙,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117-130.
- 3) 공정자, “문헌정보학 분야의 어린이 서비스 관련 연구경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pp.303-325.

II. 연구 추이와 형태 현황

1. 연도별 연구 현황 추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논문이 연속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의 일이다.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생산된 논문은 모두 7편에 지나지 않으며, 1980년대에 2편, 1990년대에 4편 등 간헐적으로 생산되어 왔다. 대부분의 어린이서비스 연구 논문은 2000년 이후에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매년 1편씩 어린이서비스 논문이 생산되어 오다가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2003년 한 해에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6년부터는 거의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서비스 연구 논문의 현황을 통해 볼 때 연구의 양적 측면에서는 2003년과 2006년이 도약의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연도별 논문 현황

연도 학회지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비율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	·	1	3	2	2	3	7	3	4	4	4	6	43	38.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	1	·	2	1	6	3	2	7	1	1	5	4	35	31.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	·	·	·	·	·	4	5	2	6	3	6	·	27	23.9
정보관리학회지	·	·	·	·	·	·	·	1	·	1	1	1	4	8	7.1
계	7	1	1	5	3	8	10	15	12	12	9	16	14	113	100
비율(%)	6.2	0.9	0.9	4.4	2.7	7.1	8.9	13.2	10.6	10.6	8.0	14.1	12.4	100	

2003년과 2006년에 연구 논문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2003년은 우리사회에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와 관련하여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바로 순천 기적의도서관 개관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도서관이 개관한 것 이상으로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고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과 독서 환경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도서관이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전 과정이 메이저 방송사의 주요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생중계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보던 도서관의 모습과는 크게 다른, 어린이를 위해 만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2호)

들어진 도서관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소개되면서 도서관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일반 대중과 도서관(학)계에도 증폭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2006년에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가?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한 해이다. 어린이서비스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한 중앙의 도서관 정책 당국이 어린이서비스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어린이서비스의 구심체 역할을 할 도서관을 만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멀리는 1990년대 이후 민간에서 전개되었던 어린이서비스의 열기를 수용하고 낙후되어 있던 제도권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를 이끌어가기 위한 주체로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한 것이다.⁴⁾ 이러한 계기는 어린이서비스 정책과 현장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관련 연구 영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어린이서비스 현장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만들어진 시점에 연구에도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에서 현장의 성장과 발전이 연구의 진작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이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표 2> 연도별 총 논문 수 대비 어린이서비스 논문 현황

학회지	구분	연도														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어린이서비스	4	·	1	3	2	2	3	7	3	4	4	4	6	43	
	총 논문 수	437	47	59	56	59	59	75	70	78	67	68	74	62	1,211	
	비율(%)	0.9	0	1.7	5.4	3.4	3.4	4.0	10.0	3.8	6.0	5.9	5.4	9.7	3.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어린이서비스	2	1	·	2	1	6	3	2	7	1	1	5	4	35	
	총 논문 수	399	63	63	65	77	74	75	89	88	86	65	71	81	1,296	
	비율(%)	0.5	1.6	0	3.1	1.3	8.1	4.0	2.3	8.0	1.2	1.5	7.0	5.0	2.7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어린이서비스	1	·	·	·	·	·	4	5	2	6	3	6	·	27	
	총 논문 수	118	19	27	24	25	25	30	23	20	61	53	68	67	560	
	비율(%)	0.8	0	0	0	0	0	13.3	21.7	10.0	9.8	5.7	8.9	0	4.9	
정보관리학회지	어린이서비스	·	·	·	·	·	·	·	1	·	1	1	1	4	8	
	총 논문 수	312	45	45	60	58	59	61	62	60	67	60	65	63	1,017	
	비율(%)	0	0	0	0	0	0	0	1.6	0	1.5	1.7	1.5	6.3	0.8	
계	어린이서비스	7	1	1	5	3	8	10	15	12	12	9	16	14	113	
	총 논문 수	1,266	174	194	205	219	217	241	244	246	281	246	278	273	4,084	
	비율(%)	0.6	0.6	0.5	2.4	1.4	3.7	4.1	6.1	4.9	4.3	3.7	5.8	5.1	2.8	

4) 김종성, 어린이서비스론(대구 : 태일사, 2011), pp.40-44.

문헌정보학 분야 전체 논문에서 어린이서비스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어린이서비스의 연구 현황을 이해할 수도 있다. 전체 논문에서 어린이서비스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를 넘어서기 시작한 시점은 역시 200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해는 2007년으로 전체 문헌정보학 논문에서 어린이서비스 논문이 차지한 비중이 6.1%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구 논문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신생 분야라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짧은 기간에 연구 역량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회지에 따른 연구 논문 현황을 보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가장 많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의 경향을 보면 다소 다른 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경우 대부분의 논문이 2006년 이후에 게재되어 이 기간만 두고 보면 앞선 두 학회지에 뒤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논문에 비해 비중이 두 학회지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다른 학회지에 비해 어린이서비스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학회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 분야의 학위논문 생산 현황을 보면 2000년 이전에 생산된 논문이 전체의 12%이고 그 이후가 88%로 나타났다.⁵⁾ 학위논문에서도 2000년 이후에 절대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술 논문에 비해 2000년 이전에 생산된 논문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은 차이가 나는 점이다.

2. 연구 형태와 연구자 현황

어린이서비스 연구 논문에서 나타난 연구 형태를 보면 전체 논문의 58.4%는 개인연구로 수행되었고, 나머지 41.6%는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일반적인 문헌정보학 연구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비율은 공동연구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3개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한 이명희의 연구에서는 개인연구가 73.53%, 공동연구가 26.45%로 나타났다.⁶⁾ 그리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지에 게재된 현장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정재영·박진희의 연구에서는 개인연구가 69.7%, 공동연구가 30.2%로 나타났다.⁷⁾ 이 두 연구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비교해 보면 어린이서비스에서 나타난 공동연구의 비율은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연구의 형태는 교육인력 간에 이루어진 것과 교육인력과 현장인력이 협력한 연구로 구분할

5) 공정자, 전계논문, pp.310-311.

6) 이명희, 전계논문, p.293.

7) 정재영·박진희, 전계논문, p.183.

수 있다. 교육인력은 교수, 강사, 대학원생 등 대학에 소속된 인력을 이야기 하며 현장인력은 사서, 사서교사 등의 신분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나 관리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공동연구의 비율에서 교육인력 간에 이루어진 협력 작업이 교육인력과 현장인력 간에 이루어진 협력 작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교육인력과 현장인력 간의 협력 작업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공동연구의 비율이 높은 것의 의미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

개인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단연 교수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뒤를 강사, 사서, 대학원생이 따르고 있다. 주제 영역에 따른 연구 형태의 차이는 특기할 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제에 따른 연구자의 선호나 작업 방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연구 형태별 논문 현황

구분	주제 신분									비율 (%)
		일반	공간/ 시설	인력	자료	프로그램	이용자 서비스	독서	계	
개인연구	교수	2	1	3	13	12	9	8	48	42.4
	강사	1	.	2	2	2	1	2	10	8.9
	대학원생	.	.	.	1	.	.	1	2	1.8
	사서	2	.	.	1	.	.	3	6	5.3
	소 계	5	1	5	17	14	10	14	66	58.4
공동연구	교육 인력 간	5	5	4	6	5	8	.	33	29.2
	교육+현장인력	2	.	1	3	5	1	2	14	12.4
	소 계	7	5	5	9	10	9	2	47	41.6
합 계		12	6	10	26	24	19	16	113	100
비율(%)		10.6	5.3	8.9	23.0	21.2	16.8	14.2	100	

연구자 개인별 논문 현황을 보면 연구자의 저변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5명의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한 횟수는 전체 횟수 173회의 17.3%에 지나지 않으며 연구에 2~4회 참여한 인원이 무척 넓게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구자가 집중적으로 연구 논문 생산에 참여하는 경향보다는 다양한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 작업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연구경향 분석에서 상위 5명의 연구자 그룹이 전체 연구 참여 횟수의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대조적이라고 할 만하다.⁹⁾ 이러한 비교를 통해 세 가지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는 아직 어린이서비스의 연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학교도서관 분야에 비해 어린이서비스 분야의 연구자 구성이 더 넓고 다양하다는 것이며, 셋째는 멀지

8) 이명희, 전계논문, pp.308-309.

9) 김종성, “학교도서관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2호(2013. 6), p.78.

않은 미래에 이 분야의 전문 연구자 그룹이 좀 더 뚜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개인연구로 2회 이상, 혹은 개인연구를 1회 이상 포함하면서 전체 연구 3회 이상 참여한 연구자는 모두 27명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자 그룹이 어린이서비스 연구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연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에서 퇴직한 교수나 과정을 졸업한 대학원생들은 연구 일선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력이 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개인연구로 어린이서비스 연구를 수행한 18명의 경우 신진 연구 인력의 후보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린이서비스 분야의 연구 인력은 어렵지 않게 현재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연구자별 논문 현황

연구자	연구 참여 횟수			신분	연구자	연구 참여 횟수			신분
	개인 연구	공동 연구	계			개인 연구	공동 연구	계	
H1	4	3	7	교수	H3	2	1	3	교수
L1	4	2	6	강사	K5	1	2	3	교수
K1	·	6	6	대학원생→강사	K6	·	3	3	교수
H2	·	6	6	교수	M	·	3	3	강사
J1	5	·	5	사서→교수	Y2	·	3	3	강사
J2	2	2	4	교수	O	·	3	3	교수
K2	1	3	4	교수	C	·	3	3	대학원생
J3	1	3	4	교수	K7	2	·	2	교수
K3	·	4	4	교수	K8	2	·	2	교수
Y1	3	·	3	교수	K9	2	·	2	교수
L2	3	·	3	교수	A1	2	·	2	교수
J4	3	·	3	교수	Y3	2	·	2	교수
K4	2	1	3	강사→교수	그 밖에 공동연구 2편(10명), 개인연구 1편+공동연구 1편(1명), 개인연구 1편(18명), 공동연구 1편(38명)이 있음.				
S1	2	1	3	교수					
J5	2	1	3	사서					

어린이서비스 분야 논문의 생산 기반을 살펴보면 흥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체 연구 중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44편으로 39%에 이르며, 석·박사학위 논문에 기반을 둔 논문은 12.4%에 이른다. 어린이서비스 관련 논문 중 절반 이상인 51.3%가 일차적인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문헌정보학 현장연구 경향 분석에서는 28.2%, 일반 학술지 논문 연구 경향 분석에서는 35.35%, 학교도서관 연구 경향 분석에서는 31.1%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으로 나타났다.10)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연구비 지원 논문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체 연구비 지원 논문의 절반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

10) 정재영·박진희, 전계논문, p.18; 이명희, 전계논문, p.304; 김종성, 전계논문, p.79.

서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논문의 19.5%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 현황 추이에서 2006년 이후 연구 논문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노파심 섞인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관행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스스로 연구 역량을 확립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연구자들에게 타성적이고 획일적인 연구 행태가 팽배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학위논문에서 출발한 연구 논문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인력 간 공동연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논문은 대체로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 형태로 투고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의 연구 지원을 통해 수행된 과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학원생이나 현장 사서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공동연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논문 생산 기반(연구비, 학위논문) 현황

구분	영역	영역								비율 (%)
		일반	공간/시설	인력	자료	프로그램	이용자 서비스	독서	계	
연구비	대학 교내연구비	1	1	3	5	5	1	1	17	38.6
	한국연구재단	·	2	·	1	·	·	·	3	6.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5	·	4	4	3	5	1	22	50.0
	문화관광부	1	·	·	·	1	·	·	2	4.5
	소 계	7	3	7	10	9	6	2	44	100
학위논문	박사 논문	·	2	·	3	1	2	2	10	71.4
	석사 논문	·	·	1	1	1	·	1	4	28.6
	소 계	0	2	1	4	2	2	3	14	100
합 계		7	5	8	14	11	8	5	58	

Ⅲ. 연구 주제와 방법 현황

1. 주제별 연구 현황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주제 영역을 7가지로 나누어 보면 자료와 프로그램 영역의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용자서비스, 독서, 일반 영역이 뒤를 이었고 인력과 공간/시설

영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도별/주제별 논문 현황

주제 \ 연도	연도														계	비율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	1	·	·	·	·	1	·	1	4	1	1	3	·	12	10.6	
공간/시설	·	·	·	·	·	3	·	·	·	·	1	·	2	6	5.3	
인력	1	·	·	·	·	1	·	2	3	·	2	1	·	10	8.9	
자료	2	·	1	1	1	1	2	1	3	5	·	4	5	26	23.0	
프로그램	·	1	·	2	2	2	2	2	1	2	4	4	2	24	21.2	
이용자서비스	·	·	·	·	·	·	3	5	1	3	1	1	5	19	16.8	
독서	3	·	·	2	·	·	3	4	·	1	·	3	·	16	14.2	
계	7	1	1	5	3	8	10	15	12	12	9	16	14	113	100	
비율(%)	6.2	0.9	0.9	4.4	2.7	7.1	8.9	13.2	10.6	10.6	8.0	14.1	12.4	100		

시기별로 보면 자료, 프로그램, 독서 영역은 전 시기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간/시설, 인력, 이용자서비스 영역은 2005년 이후에 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연구되어 오던 주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주제 영역을 구별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표 7〉 주제별/학회지별 논문 현황

학회지 \ 연도	연도								계	비율 (%)
	일반	공간/시설	인력	자료	프로그램	이용자 서비스	독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	1	5	9	14	3	8	43	38.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	3	2	9	6	5	5	35	31.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	·	3	7	4	8	3	27	23.9	
정보관리학회지	2	2	·	1	·	3	·	8	7.1	
계	12	6	10	26	24	19	16	113	100	
비율(%)	10.6	5.3	8.9	23.0	21.2	16.8	14.2	100		

학회지에 따라서는 주제 영역별로 특기할 만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는 프로그램과 독서 영역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는 이용자서비스와 독서 영역이,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는 이용자서비스 영역이 전체 비율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주제 영역별로 연구의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좀 더 흥미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일반 영역에는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비롯하여 연구경향, 철학, 협력, 운동 등에 대한 연구가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포함되었다.

공간/시설 영역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공간의 이용행태에 관한 것이다. 어린이 열람실이나 어린이도서관의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패턴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공간 배치와 디자인에 반영하는 원리를 도출하는 연구이다. 어린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공간과 시설의 연구는 사실 건축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과 관련하여 연구의 과제로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서관의 기능적 측면에서 어린이도서관의 구조와 공간 배치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조형성이 뛰어난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사서와 이용자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이용할 때는 불편과 비효율을 경험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인력에 대한 연구 10편은 모두 사서에 대한 연구로, 내용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어린이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3편, 현장 사서의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가 2편, 어린이서비스 사서의 직무와 능력에 관해 논의한 연구가 5편이다. 그리고 인력 영역의 연구 10편 중 7편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이며 그 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가 4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 사서의 양성과 직무 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영역의 연구는 모두 26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미의 학위논문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북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에 대한 연구가 무척 저조한 것이 큰 특징으로 제시되었는데 학술 논문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¹¹⁾ 요컨대 우리나라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는 자료에 대한 연구가 학위논문보다는 주로 학술 논문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에 관한 연구 26편 중에는 어린이 도서를 다룬 연구가 14편으로 가장 많았고, 자료조직을 다룬 연구가 7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는 도서목록을 다룬 연구 3편, 서지와 서평을 다룬 연구가 각각 1편씩 있었다. 어린이 도서를 연구한 논문은 전래동화, 학습만화, 판타지 등의 장르에 따라 책을 분석한 연구에서부터 책의 이용행태, 전자책, 수상작 분석 등을 다룬 연구까지 다양하였다. 자료 조직 주제에서는 주로 어린이 자료를 위한 분류체계를 연구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전체 24편 중 8편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¹²⁾ 독서치료의 뒤를 이어 독서캠프 3편, 북스타트 3편, 스토리텔링 2편, 프로그램 일반 3편 등이 복수로 연구된 주제로 나타났다. 그 밖에 영어독서프로그램, 인형극, 책 읽어주기 등에 대한 연구가 1편씩 있었다.

이용자서비스 영역에서는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가 어린이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것이었다. 어린이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온라인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탐색 행태 등을 다룬 연

11) 공정자, 전계논문.

12) 황금숙, 전계논문, p.123.

구가 모두 11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행태를 연구한 논문이 6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자서비스 영역에서 정보서비스나 기타 이용자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영역에서는 무척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서비스 차원에서 독서진흥에 관한 연구가 4편, 독서 효과에 관한 연구가 3편, 어린이들의 독서행태에 관한 연구가 2편, 독서실태 연구가 2편,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가 2편, 독서태도, 운동, 동기유발에 관한 연구가 각각 1편씩 나타났다. 독서 영역의 연구는 무척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린이서비스 영역에 포함시켜 분석하기에 간단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현황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적용된 연구방법을 분석해 보면 전체의 88.4%는 단일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으로는 조사연구로, 전체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다른 연구경향 분석에서는 조사연구에 비해 문헌연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다소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¹³⁾ 많은 어린이서비스 연구가 설문조사나 현황조사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내용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 연구방법별 논문 현황

구분	연구방법	영역								비율 (%)
		일반	공간/시설	인력	자료	프로그램	이용자 서비스	독서	계	
단일 방법	문헌연구	2	·	3	2	1	1	2	11	9.7
	조사연구	7	5	5	7	11	6	7	48	42.4
	내용분석연구	1	·	·	11	1	1	·	14	12.3
	실험연구	·	·	·	·	3	2	3	8	7.1
	실행연구	1	·	·	1	5	1	·	8	7.1
	질적연구	1	·	·	1	·	·	1	3	2.7
	시스템분석연구	·	·	·	·	·	8	·	8	7.1
복합 방법	문헌연구+조사연구	·	1	1	2	2	·	2	8	7.1
	문헌연구+실행연구	·	·	1	1	·	·	·	2	1.8
	조사연구+내용분석연구	·	·	·	1	·	·	1	2	1.8
	조사연구+사례연구	·	·	·	·	1	·	·	1	0.9
계		12	6	10	26	24	19	16	113	100
비율(%)		10.6	5.3	8.9	23.0	21.2	16.8	14.2	85.8	

13) 이명희, 전계논문, p.298; 김종성, 전계논문, p.82.

어린이서비스 연구 방법으로 실험연구와 실행연구가 적지 않은 것도 주목된다. 이 두 가지 연구방법은 무척 유사한 것이지만 논문에 적용되는 약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구분하였다. 실험연구는 주로 가설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실험집단과 비실험집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차이를 검증하는 논문을 포함하였다. 실행연구는 대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결과를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실험연구에 비해 결과의 검증이나 참여자간의 차이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연구를 여기에 분류하였다. 실험연구와 실행연구가 비교적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런 연구방법의 적용이 많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내용분석연구는 주로 자료 영역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 도서를 연구하는 논문에서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주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때 주로 내용분석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스템분석 방법은 모두 정보시스템을 평가하거나 설계하는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를 비교하거나 분석하여 개선점을 탐구하거나 이용 패턴을 조사하는 내용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IV. 발전을 위한 과제

1. 도서 연구의 역량 강화

일반적인 도서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서비스에서도 서비스의 핵심 자원은 장서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의 모든 활동은 장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장서를 개발하는 것은 어린이서비스 현장의 일차적인 과제이다.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도서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이런 맥락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좋은 어린이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도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서를 양성해야 하고, 좋은 장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원리와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작업의 출발은 어린이 자료에 대한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서비스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영역보다도 어린이 도서에 대한 연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미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1943년부터 생산된 어린이서비스 주제 석·박사 학위논문 중 48%가 자료에 관한 것이며, 그 중에서 74%는 어린이 도서에 대한 연구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원리를 확인시켜 준다.¹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 사서들은 어린이 도서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도서연구회' 같은 어린이 책 시민단체가 가지는 어린이 도서에 대한 사회적 주도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은 두말한 필요도 없다. 연구 영역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4) 공정자, 전개논문, pp.311-315.

어린이 도서에 대한 연구는 어린이문학이나 출판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는 구조적 문제로 그와 관련한 연구와 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런 문제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을 앞세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어린이 도서에 대한 현장과 강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연구 영역에서는 어린이 도서에 대한 연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연구에서 분석한 어린이서비스 논문에서 어린이 자료에 관한 연구는 모두 26편이었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 도서에 관한 연구는 14편이었다. 이 중에서 뉴베리메달 수상작을 분석한 연구, 서평에 대한 연구, 어린이 도서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전자책에 대한 연구 등을 제외하고 어린이 도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9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그 양은 그다지 많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어린이 도서에 대한 연구의 양은 적지만 모두 다양하고 좋은 도서 연구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찍이 어린이 도서 연구에 관심을 가진 대표적인 연구자는 한윤옥인데, 1980년대부터 도서의 형태와 내용 요소에 따라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였다.¹⁵⁾ 그 뒤 그녀는 1960년대 이후 30년간 간행된 아동문학 도서의 표지를 분석하여 특성과 변화 양상을 정리¹⁶⁾ 하기도 하였고, 미국에서 간행된 한·중·일 아동문학에 담긴 주인공의 민족적 특성을 분석¹⁷⁾ 하기도 하여 어린이 도서 연구의 좋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방 이후 생산된 우리나라 전래동화 연구문헌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유소영은 전래동화 연구의 현실과 문제를 제시하면서 어린이 도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전래동화 연구자 층은 매우 빈약하지만 앞으로 연구 활성화가 진전될 것이며, 전래동화의 이용과 관련한 연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주제(학문)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어 연구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¹⁸⁾ 최근에 생산된 전래동화 연구 논문 한 편은 이런 예견을 확인하게 해 준다. 김수경은 이중언어(영어-한국어)로 된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문화 가족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독서치료 자료로서의 가치를 검토하면서 향후 각국의 이중언어(베트남어-한국어, 중국어-한국어, 몽골어-한국어, 태국어-한국어 등)로 된 전래동화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래동화 이외에 이중언어로 된 현대 어린이 책들도 다문화가정과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도서목록 개발의 대상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였다.¹⁹⁾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전래동화 한 분야만 하더라도

15) 한윤옥, “아동의 심리발달과 도서 선호의 변화,” 도서관학, 제17집(1989), pp.105-159.

16) 한윤옥, “한국 아동문학 도서의 표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4집(1993. 6), pp.113-137.

17) 한윤옥, “아동문학도서에 나타난 주인공의 민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1997. 6), pp.59-77.

18) 유소영, “우리나라 전래동화 연구의 서지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3. 6), pp.267-268.

19) 김수경, “한국전래동화의 독서치료적 가치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3호(2012. 9), p.290.

도 무궁무진한 연구의 과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해님과 달님’이라는 전래동화의 다양한 이본(異本)의 내용적 구조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송정숙은 이러한 연구가 사서나 부모가 자료를 선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동화작가들이 우수한 동화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고 사서들이 도서의 내용에 대해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⁰⁾

이러한 도서 연구의 맥락에 있는 연구로서 최근에는 만화 자료의 증가에 따라 만화의 자료적 가치와 이용행태 등을 연구하는 논문도 나타나고 있다. 학습만화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만화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독서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²¹⁾ 우리 출판과 독서 현장에는 학습만화 과잉 현상이 하나의 문제로 부각되어 있으며 공공도서관이나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학습만화에 편중된 자료 이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화 자료의 독서 효용성을 연구한 논문에서 ‘만화가 가지고 있는 독서자료로서의 효용성이 지식전달 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그 활용 방법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만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도출해 내는 학문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만화 자료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한다.²²⁾

위에서 살펴본 논문들이 우리 어린이서비스에서 수행된 도서 연구의 대부분이다. 연구자들의 기대와 강조에도 불구하고 도서 연구가 크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서비스 연구가 현장과 강단을 이끌어가는 이론의 진원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도서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 테마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만하다. 영유아들을 위한 도서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연구, 그림책에 대한 갈래와 서지 연구, 옛이야기에 대한 문학적·사회학적·철학적·역사적 측면 등의 연구, 다양한 주제의 동화 연구, 장르별 도서의 특성 연구, 작가 연구, 시대와 지역별 작품 경향 연구 등 어린이 도서에 대한 연구는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는 금광처럼 연구자의 관심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문헌정보학이 어린이 독서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사서가 어린이 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도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실효성 제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여 년간 어린이서비스 영역의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

20) 송정숙,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이본(異本) 비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69.

21) 이종문, “학습만화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12. 6), pp.227-246.

22) 류반디, “만화의 독서 효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2호(2011. 6), p.138.

으며 연구주제의 다양성과 연구방법의 적절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어린이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내용적 수준과 효용성을 한 단계 더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많은 연구들이 조사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현황을 수집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단순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연구자의 역할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소개하는 데 머무르는 경향이 많으며 연구의 결과도 적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구의 패턴과 경향은 궁극적으로 연구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린이서비스 인력 영역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어린이 사서를 위한 교육과정과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어린이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서의 전문성 확립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부의 사서양성 교육과정과 현장 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무척 시의성 있고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의도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논리적 구조와 문제의식이 좀 더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순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정확성이 눈에 띈다. 전국의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어린이서비스 관련 교과목의 현황을 보면 누락된 학교가 있고 데이터의 합산이 정확하지 않는 것도 있다.²³⁾ 교과목 개발 연구의 논리적 구조는 현재 편성 교과목 현황과 현장 사서들의 의견 조사를 기반으로 교과목을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의 오류는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과정은 내용이나 성격 등에서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과정을 대학의 교육에서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제안되었다면 더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그것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가령 어린이서비스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만이라도 사서를 선발할 때 이러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전국어린이서비스협의회 등에서 주도하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학과에 어린이 사서 양성 교육과정으로 인증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서 현장 사서들의 의견을 조사할 때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의식이 분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신뢰성을 내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에서

23) 박현주·이상복, "어린이전문사서를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2호(2010. 6), pp.97-110; 한복희, "어린이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계속교육의 발전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2010. 8), pp.267-288; 정혜미·차미경,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를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2호(2007. 12), pp.161-181.

는 교과목의 편성 여부보다는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독서지도와 같은 교과목은 실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서지도 교과목은 그 접근방법이나 교수의 성향 등에 따라 무척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교과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펴본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연구뿐만 아니라 어린이서비스 전반에서 이처럼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과제에 접근하는 전략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데이터가 이야기하지 않는 실제 상황의 여러 국면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연구 문제를 대하는 사유 체계가 심층적이며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어린이서비스의 연구를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소개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유를 기반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통찰력을 동원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치열한 의식의 노동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3. 현장 근접성 강화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을 보면 현황이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현장을 지향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장에 근접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현황 조사나 의견 조사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현장의 실제적인 개별성을 이해하고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충분히 보고하고 부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패턴에서 연구자는 현장이 있는 지상에 내려와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에서는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잘 볼 수는 있지만 현장의 복잡미묘한 사정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어린이서비스 현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어린이서비스의 개념과 기본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도서관의 성격이나 위치에 따라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다. 교육청 소속으로 역사가 오래된 공공도서관, 자치단체에서 최근에 설치한 공공도서관, 민간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 여러 형태의 작은도서관 등 설립과 운영 주체에 따라, 역사와 규모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현황이나 구조를 읽어내려는 노력 못지않게 개별적인 상황과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별 도서관이 처한, 혹은 만들어내는 특수한 상황과 문제에 따라 그에 맞는 해결책이 검토되고 모색되어야 실효성 있는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연구자는 현장에 밀착할 수 있는 연구 기법과 전략을 선택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각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도서관이 처한 상

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관점을 소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사례 연구나 질적연구 방법이 이러한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적용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어린이서비스 연구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용어와 관련된 것이다. 아직도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정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연구에서 일반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린이서비스 일반을 지칭하거나,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 열람실 서비스를 언급하면서도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에서도 어린이 이외의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며, 도서관의 명칭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용어가 '어린이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의 통일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계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이끌어준다는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용어의 바른 사용은 가뻐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V. 결 론

이 연구는 어린이서비스의 연구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정보학분야의 4개 학회지에 실린 관련 논문 113편을 분석하였다. 시간의 흐름과 학회지에 따른 논문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연구 형태에 따른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7개 분야의 연구 주제 영역별로 논문의 생산 현황을 분석하였고 연구방법에 따른 현황도 살펴보았다.

어린이서비스 연구는 200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며 2006년부터 두 자리수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어린이서비스 연구가 순천 기적의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개관이라는 어린이서비스에 전기를 가져온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분야에 비해 개인연구보다 공동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배경은 연구의 생산기반이 학위논문이거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인력은 그 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소수 연구자가 차지하는 연구 비중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무척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연구논문의 약 20%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주제별로 보면 자료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시설과 인력 영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으로는 조사연구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 반면 다른 분야에 비해 문헌연구가 적게 사용된 것도 한 가지 특징이라 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서비스 연구는 그 역사에 비해 내용과 형식에서 나쁘지 않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연구가 전체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현장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발견되었다. 어린이 도서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하여 어린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주도성을 확립하는 것, 좀 더 실효성 높은 연구를 위해 연구의 내면적 구조를 정교하게 하고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심화하는 것, 다양한 현장의 개별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보고하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현장에 한층 더 근접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간행된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서비스 전체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를 출발로 하여 이후에 문헌정보학 이외의 분야에서 연구된 어린이서비스 관련 연구를 포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 독서나 독서치료, 그리고 어린이서비스를 위한 공간과 시설 등은 문헌정보학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도 적지 않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외국의 연구와 비교하여 우리의 연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이후의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어린이서비스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의 연구 역사와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연구의 전망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공정자. “문헌정보학 분야의 어린이 서비스 관련 연구경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pp.303-325.
-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 논문제목의 구문 및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09. 9), pp.417-439.
- 김수경. “한국 전래동화의 독서치료적 가치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3호(2012. 9), pp.271-295.
- 김정현. “한국의 자료조직 분야 연구동향: 1970~20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149-164.
- 김종성. “학교도서관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2호(2013. 6), pp.71-91.
- 김종성. 어린이서비스론. 대구 : 태일사, 2011.
- 남태우, 이진영.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451-473.

- 류반디. “만화의 독서 효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2호(2011. 6), pp.123-139.
- 박현주, 이상복. “어린이전문사서를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2호(2010. 6), pp.97-110.
- 설문원.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3호(2012. 9), pp.203-232.
-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1959~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2003. 12), pp.21-42.
-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6), pp.9-32.
- 송정숙.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이본(異本) 비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47-69.
- 송정숙.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현황 분석: 2001년~2010년 발행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12), pp.333-353.
- 오세훈, 이두영.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2005. 3), pp.167-189.
- 유사라. “메타데이터 주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0. 6), pp.404-425.
- 유소영. “우리나라 전래동화 연구의 서지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3. 6), pp.253-268.
- 윤희윤.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성과와 한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25-44.
- 이란주, 임지혜. “한국의 서지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1호(2002. 3), pp.323-344.
- 이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9), pp.287-310.
- 이소연.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2011. 6), pp.8-31.
- 이종문. “학습만화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12. 6), p.227-246.
- 장로사, 김유승.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1호(2009. 3), pp.87-100.
- 장윤미, 정연경. “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1호(2013. 3),

pp.24-44.

- 정재영, 박진희.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 (2011. 6), pp.171-191.
- 정혜미·차미경.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를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2호(2007. 12), pp.161-181.
- 최재희.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1. 3), pp.7-22.
- 한복희. “어린이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계속교육의 발전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2010. 8), pp.267-288.
- 한복희. “이용자 연구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도서관학, 제23권(1992), pp.107-125.
- 한윤옥. “한국 아동문학 도서의 표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4집(1993. 6), pp.113-137.
- 한윤옥. “아동문학도서에 나타난 주인공의 민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1997. 6), pp.59-77.
- 한윤옥. “아동의 심리발달과 도서 선호의 변화.” 도서관학, 제17집(1989), pp.105-159.
- 황금숙.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117-130.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Ro-Sa, Kim, You-Seung.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cience in Korea: Focused on the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0, No.1(2009), pp.87-100.
- Chang, Yun-Mee, Chung, Yeon-Kyoung. “A Study o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bout Class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4, No.1(2013), pp.24-44.
- Choi, Jae-Hee. “Research Trends in Archival Appraisal Science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ol.11, No.1(2011), pp.7-22.
- Chung, Jae-Young, Park, Jin-Hee. “Analysis of the Trends in the Field Stud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4(2011), pp.171-191.
- Hahn, Bock-Hee.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on the Information User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3(1992), pp.107-125.
- Hahn, Bock-Hee. "Developing Curricula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Continuing Education for Children's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4, No.3(2010), pp.267-288.
- Han, Yoon-Ok. "A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ookjacket of Children's Boo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4(1993), pp.113-137.
- Han, Yoon-O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Children's Development and Book Prefer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7(1989), pp.105-159.
- Han, Yoon-Ok. "East Asian American Character's Characteristics in Children's Fictional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31, No.2(1997), pp.59-77.
- Hoang, Gum-Sook.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6, No.1(2005), pp.117-130.
- Jeong, Hye-Mi, Cha, Mi-Kyeong. "A Study on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Develop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Children's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8, No.2(2007), pp.161-181.
- Kim, Gyu-Hwan, Jang, Bo-Seong, Yi, Hyun-Jung.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Based on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of Article Tit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3, No.3(2009), pp.417-439.
- Kim, Jeong-Hyen.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source Organization in Korea: 1970-2010."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3(2011), pp.149-164.
- Kim, Jong-Sung.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Daegu : Taeilsa, 2011.
- Kim, Jong-Sung. "Trends Analysis of School Library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the*

-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4, No.2(2013), pp.71-91.
- Kim, Soo-Kyoung, "A Study on the Bibliotherapeutic Values of Korean Folk-tales: Focused on Establishing and Analyzing their Situ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6, No.3(2012), pp.271-295.
- Kong, Jeong-Ja, "Analysis for the Tendency to Study Children's Service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cused on Masters and Doctoral Theses Submitted from 1981 to 201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5, No.3(2011), pp.303-325.
- Lee, Jong-Moon, "An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Students and Parents to Comics for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2(2012), pp.227-246.
- Lee, Lan-Ju, Lim, Ji-Hea,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Bibliograph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3, No.1(2002), pp.323-344.
- Lee, Myeong-Hee, "Recent Trends in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36, No.3(2002), pp.287-310.
- Lee, So-Yeon, "Trends Analysis of Electronic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ol.11, No.2(2011), pp.8-31.
- Nam, Tae-Woo, Lee, Jin-Young,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0, No.2(2009), pp.451-473
- Oh, Se-Hoon, Lee, Too-Young,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2, No.1(2005), pp.167-189.
- Park, Hyunju, Lee, Sangbok, "Curriculum Planning for Children's Libraria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1, No.2(2010), pp.97-110.
- Ryu, Bantee, "A Study on the Reading Efficiency of Comic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2, No.2(2011), pp.123-139.
- Seol, Moon-Won. "Research Trends and Issues of Records and Archives Class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ol.12, No.3(2012), pp.203-232.
- Sohn, Jung-Pyo.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57~200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4, No.3(2003), pp.9-32.
- Sohn, Jung-Pyo.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the Master's & Doctor's Dissertations in the Field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59~200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4, No.4(2003), pp.21-42.
- Song, Jung-Sook. "Comparison with the Alternative Versions of the Korean Fairy Tale <The Sun and the Mo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6, No.1(2005), pp.47-69.
- Song, Jung-Sook.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01 to 2010."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1, No.4(2010), pp.333-353.
- Yoo, Sarah. "A Diagnostic Analysis of Metadata R&D Statu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4, No.2(2010), pp.404-425.
- Yoo, Soyoung. "A Bibliographical Analysis on the Folktale Stud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37, No.2(2003), pp.253-268.
- Yoon, Hee-Yoon. "Outcomes and Limitations of the Library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3(2011), pp.25-44.